

종업원 명의 대출 받아 가로채고 그의 아내 성폭행...5살 아들은 상습폭행

일가족 짓밟은 악덕 편의점 업주

전남경찰청, 40대 구속

종업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빼앗고, 함께 일하는 종업원의 아내를 강간하고, 이들 부부의 다섯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악덕 편의점 업주가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종업원 명의로 대출한 돈을 가로채고 그의 아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들 부부의 아들을 상습폭행한 혐의(사기·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 등으로 편의점 업주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 부부를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으로 고용해 노동력을 착취한 이씨의 아내(35)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광주고용노동청에 통보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10월 일자리를 소개하겠다고 편의점 A(27)씨에게 신분증을 받아 휴대전화 4대(시가 400만원)를 개통·판매하고, 저축은행 등 3곳의 금융기관에서 18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또 A씨 부부를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게 하면서 편의점 종업원으로 고용해 각각 12시간씩 교대로 일하게 한 뒤 A씨가 일하러 나가면 혼자 집에 남아있는 그의 아내(27)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의 5살 아들에게는 "시끄럽게 떠든다"며 얼굴을 때리고 목살을 잡아 침대에 던지는 등 주 1회 이상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이씨의 아내는 2014년 1월부터 2년6개월 동안 피해자 부부를 본인의 편의점에서 12시간씩 2교대로 번갈아 아르바이트시키면서 시급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3000원만 지급해 1500만원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광주의 한 전기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A씨를 만난 이씨는 A씨가 평소 자신의 말을 순종하며 잘 듣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A씨 부부에게서 가로챈 돈을 스포츠토도 등 도박으로 탕진하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대형운전면허와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버스운전자격증 없이 올해

3월부터 광주의 모 관광버스에 취직해 주말 서울 출퇴근버스를 왕복 운행하고, 수시로 교외 단체행사 차량을 운행하는 등 무면허 운전으로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와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광주 한 전기회사에서 동료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낙 체격 차이가 커 당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겁을 먹은 A씨가 이씨의 말을 무조건 따르던 점과 A씨 가족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정을 악용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생활비 부족으로 뽕뽕이 흘러져 사는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해 긴급 지원과 피해구제 방범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호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면서 "이씨가 운전면허도 없이 지입차인 관광버스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하는 등 지입차량 관리 문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짓밟힌 젊은 부부의 지옥같은 생활 왜

생계대책 없고 종속적 관계에 항거 못해 이전 직장때부터 상습적 괴롭힘 당한 듯

20대 젊은 남편은 대출금 1800만원을 빼앗기고, 그의 아내는 수차례 성폭행당하고, 이들 아들은 일주일이 멀다하고 상습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젊은 부부가 어떻게 이리 무참히 짓밟힐 수 있었을까?

사건을 수사한 전남경찰청 박종호 광역수사대장은 "다른 생계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종속적 위치에 놓여있고 상습적으로 피해를 당하다 보니 항거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 부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자연히 학교도 고

매했다. A씨는 중학교 때 일찍 부모를 여의고 돌봐줄 보호자가 없던 상황이었다.

왜소한 체격 때문에 군대를 면제받은 A씨는 마땅한 직장 없이 지내다가 지난 2010년 광주 한 전기회사에서 이모(45)씨를 우연히 만났다. 경찰은 그때부터 A씨가 이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씨 부부의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지만 이들 부부는 저항하지 않았다. 특히 A씨의 아내는 이씨에게 지속적인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지만 이를 숨겨왔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자존감이 약하고 정

서적,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A씨 부부가 이씨의 갑압적인 힘이나 폭력에 굴복해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대 심리학과 김용희 교수는 "어린 시절 의지할 사람을 잃은 이들은 정서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본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A씨 부부도 이씨의 크고 작은 강압에 무력해지고, 이씨도 A씨 부부가 저항하지 않자 범죄 수위를 높여면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아내도 성폭행 등으로 힘든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존감이 약해 피해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부부 모두 심리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조선대 보류 인사 10일만에 단행

조선대가 총장 선거 이후 내부 갈등으로 보류됐던 인사를 10일만에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새판짜기'에 나섰다. <명단 22명>

조선대는 1일 강성원 보건검정장 총무관 리부차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박복만 자산관리팀장을 대외협력부차장으로 발령하는 등 78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조선대는 총장 선거 직후 10명이 넘는 고직원을 부차장급에서 팀장급으로 강등하거나 팀장 직함을 없애는 인사를 단행하

면서 직원들 안팎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보복(?) 인사'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조선대는 이후 직원노조측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팀장직에서 배제했던 12명의 직위를 유지하는 인사안을 발표했다. 대신, 부차장급 직원 4명을 팀장으로 강등하는 애초 안은 그대로 진행됐다.

최철 조선대 직원노조위원장은 "총장 선거 때마다 보은·보복 인사가 잇따르면서 조직 분위기가 피폐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합리적 인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 집행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완 조선대 총장도 이와관련, 내부 게시판에 '구성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올려 "이번 직원 인사를 시행하면서 인사제도와 평가시스템의 불합리한 요소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평가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 선순환과 역동성을 원칙으로 하는 공정한 보직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월급 572만원 돼야 발급?...황당한 경차사랑카드

"월급 572만원은 돼야 경차사랑카드를 발급해준다니 말이 됩니까. 경차 타는 직장인 중 월급 572만원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차사랑카드 발급 안내를 받은 박모(46·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최근 카드발급 신청을 하러갔다가 카드회사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월급여가 572만원은 돼야 카드 발급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서민정책이라더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 572만원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광산구에 사는 김모(44)씨도 신용카드를 발급하러 갔다가 수치심만 느끼고 돌아왔다. 국민건강보험료 7만원 이상 납부해야 신용카드를 발급해줄 수 있다며 되짜를 놓은 것이다.

경기북량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신용카드 발급의

건강보험료 적다며 되짜도

카드사 상술에 서민들 상처

김도 막혔다. 신용카드 부실이 커지면서 카드발급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서민정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경차사랑카드는 카드회사의 상술 탓에 서민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

경차사랑카드는 정부 서민정책의 하나로 경차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환급대상은 1000cc미만 경차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 소유자다. 1기구에 소유한 차량이 2대일 경우는 제외되는 탓에 서민들에게만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혜택은 연 10만원이며 휘발유·경유는 8당 250원 할인된다.

하지만 카드회사는 실적을 염두에 두고 신용카드 발급을 권장하고 있다. 문제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강화돼 상

당수 서민들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인인 박씨도 마찬가지였다. 급여 명세서만 가져오면 경차사랑카드를 발급해준다고 해서 찾아가던 카드회사는 신용등급과 부채 등을 조회하더니 주거 상태와 부동산 현황 등을 요구했다. 부동산 실사 등을 한다며 열흘가량 지나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부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부채의 경우 모두 부동산담보대출로 상환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준 것이고, 신용등급은 최상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씨는 "경차사랑카드는 연 10만원 환급이라는 실질 혜택이 있는 서민지원 제도"라며 "하지만 카드회사들이 경차 소유자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터무니 없는 조건을 요구해 상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규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과 광복회 광주전남연합회 등은 1일 광주시청 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제추진을 규탄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타이어 결합에 결항한 동방항공 여객기

중국서 나사못 박힌 채 무안공항 온 듯

지난 31일 타이어 바람이 새면서 운항이 취소(광주일보 11월 1일자 6면)된 동방항공 여객기는 이날 오전 중국에서부터 앞타이어에 나사못이 박힌 채 날아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기 앞바퀴가 이착륙 과정에서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해당 항공사와 중국 공항 측이 이륙 전 점검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무안공항출장소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10분 무안공항에서 상해 푸둥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동방항공 여객기(MU5058편) 타이어에서 결합이 발견돼 지연되다 오후 5시에 운항 취소가 결정됐다.

앞바퀴 2개 가운데 하나의 타이어에서 1.2cm짜리 나사못이 박혀 바람이 빠진 사실이 확인돼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고서는 이륙이 불가능했는데, 동방항공 측이 교체할 타이어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항공청과 동방항공 등이 조사한 결과 문제의 나사는 중국 푸둥공항에서 이륙할 때부터 박혀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나사못 대가리 부분이 마모된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무안공항에서 타이어에 박혔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동방항공 측이 여객기 이착륙 전 타이어 결합 등 기체 안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고 운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응급실서 '주취 행패' 쇠고랑



○...술에 취해 자신을 치료해주려던 간호사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병원 응급실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쇠고랑. ○...1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A(48)씨는 지난 31일 밤 10시4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여·29)씨 등 병원 직원 2명과 출동한 경찰관(5)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응급실에 방화하려한 혐의.

○...의식을 잃고 길에 쓰러져 있던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A씨가 주먹을 휘둘러 긴급체포하려고 하자 수술실에 불을 지르려고 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설명.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LPG충전소] 화순읍 대리 대로면 터널식차사실 사무실포함 토지 3,228㎡ 건물 355㎡ 감평가 12억7천4백 ▶ 최저가 8억9천3백
- ★ [공장] 서구 동천동 상무자동차전문학원인근 공장일지지역 토지 1,226㎡ 건물 322.35㎡ 감평가 12억1천7백 ▶ 최저가 8억5천2백
- ★ [공장] 화순군 이양면 풍평리 농공단지내 12m도로접 토지 6,600㎡ 건물 2,579㎡ 감평가 27억5천3백 ▶ 최저가 12억3천3백
- ★ [공장] 담양읍 삼만리 토지 9,902㎡ 건물 2,921㎡ 예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육가공공장 감평가 44억5천1백 ▶ 최저가 24억9천3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9,178㎡ 건물 5,842㎡ 장성백이사거리 인근 공장지대 감평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5억5천9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5,977㎡ 건물 2,122㎡ 동화사거리부근 공장지대 감평가 13억3천6백 ▶ 최저가 7억4천8백
- ★ [공장]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9,917㎡ 건물 3,989㎡ 대마일반산업단지내 감평가 35억2천7백 ▶ 최저가 19억7천5백

투자 추천 물건

- ★ [공장, 충전소] 광양시 진월면 진월C인근 4차선대로변 토지 12,914㎡ 공장 1,922㎡ LPG충전소 352㎡ 매매 37억5천
- ★ [공장] 전북 익산시 팔봉동 익산제2산업단지내 토지 6,627㎡ 건물 4,226㎡ 매매 19억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정문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 가능 상가 28억씩 교환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무인텔] 북구 유동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4천만원 이상 수익 위치좋은 매매 20억
- ★ 광천동 재개발지역내 원룸 매매

수익형 추천

-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요양병원 허가 취득)
- ★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터리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 6억포함) 보증금 7천 월 4백6십 매매 13억5천
- ★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대단지 토지 5,359㎡ 건물 595.4㎡ 2층공장 매매 평당 2백5십
- ★ 광주 북구 풍암동 6층건물 1층 마트 2~3층 목욕탕 4~6층 원룸 26개, 목욕탕 직영중 보증금 1억1천5백 월 9백7십 매매 18억
- ★ 광주 남구 백운동 왕복5차선도로 버스승강장부근 5층건물 대지 527㎡ 건물 1,221㎡ 보증금 2억 월 1천만 매매 18억
- ★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건물 999㎡ 보증금 1억 월 6백5십 매매 17억

병원, 공장 매매 및 임대 구함 / 광주 근교 토지 급 구함 /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